

비엔날레에서 만나는 광주이야기와 사람들

놀이때 신명의 오월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의 장면들이 그림으로 펼쳐진다. 저 세상으로 떠난 아들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는 꿈인듯, 아들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동작과 대사와 음악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마당극과는 또 다른 감동을 전한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 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광주의 이야기와 광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오월항쟁을 호명하기도 하고, 고려인 마을의 역사와 소녀들의 목소리를 불러낸다. 참여 작가들은 광주에서 리서치 과정과 작업을 진행하며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광주'를 들여다봤다.

멕시코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알리자 니센바움의 '언젠가 봄날에 드레스 리허설' 연작은 창단 41년을 맞은 '놀이때 신명'과 협업한 작품이다.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며 초상화 작업을 진행해 온 작가는 신명 단원 개인의 이야기와 그들의 연기, 공연 소품 하나하나를 담아내며 작품을 완성했다.

그림을 관람하고 난 후에는 벤치에 앉아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천정에 매달린 스피커를 통해 마당극의 장면 장면의 육성이 흘러나오는데, 애잔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길을 붙잡는다.

2전시실 천정에 내걸린 '광주 꽃피우다' 연작은 목판화 작업을 진행하는 말레이시아 예술 그룹 '광록 슬랍'의 작품이다. 목판화를 주요 수단으로 삼아

알리자 니센바움,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소재 놀이때 신명과 협업 예술그룹 '광록 슬랍', 5월 이미지 아카이브 목판화 '광주 꽃피우다' 고려인 마을 역사 담은 '삶의 극장', 전남여고생 낭송 '광주, 詩' 눈길

사회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은 민주화 현장에 늘 함께했던 한국 목판화에 주목했다.

작가들은 광주를 답사하며 만난 5월 관련 아카이브 이미지들과 광주시민의 일상을 풀어냈다. 5·18 국립묘지를 비롯해 상무관에 놓인 시신, 영정사진, 차량 시위 장면 등 익숙한 장면을 재해석한 작품에는 모두 '꽃'이 등장한다. 시위대는 격려하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꽃을 던지고, 오월 희생자들의 영정엔 사진 대신 꽃이 한 송이씩 놓였다.

디아스포라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시적 이주' 섹션에서는 광주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인 마을'을 만난다.

영상 및 퍼포먼스 작업을 진행하는 일본 작가 고이즈미 메이로의 영상물 '삶의 극장'은 고려극장의 역사를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1932년 설립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은 20세기 동안 중앙아시아의 한국 이주민인 고려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광주의 고려인 공동체에 속한 15명의 청소년들은



알리자 니센바움이 놀이때 신명과 작업한 '언젠가 봄날에 드레스 리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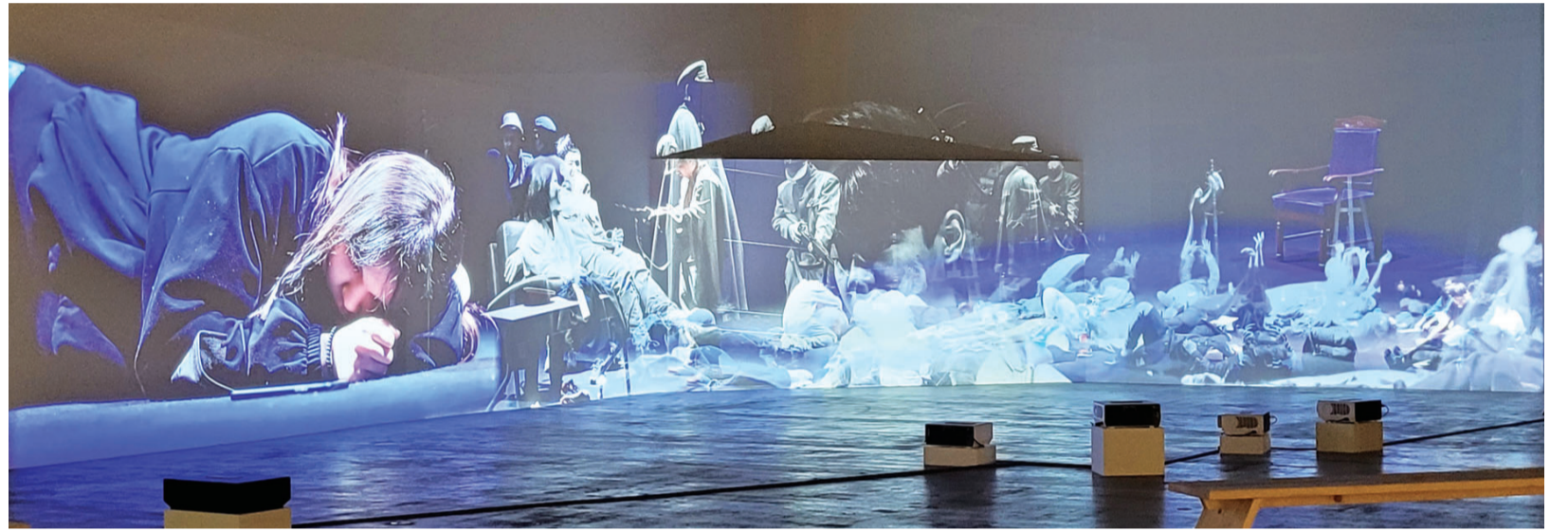
오는 장면들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프랑스에 거주중인 김순기 작가의 4채널 영상 작품 '광주, 詩'는 전남여고 학생들과 함께 작업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고생들이 황진이 등 조선시대 여성작가들의 시를 낭송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전근대 한국에서 경시됐던 여성의 관점과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 세대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폭풍우와 태풍이 흘러가는 영상이 한쪽 벽면에서 함께 상영된다.

복잡하고 독창적인 악기를 만드는 사운드 퍼포머이자 음악가인 타렉 아투리는 지난 2019년 광주를 방문하면서 전통악기장 서인석 등과 작업했다. 4년 동안의 협업의 결과물인 '엘레멘탈 세트'는 장구 등 한국의 전통 타악기와 웅기, 기계적 장치가 결합해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작품의 구성원리를 관객과 공유하는 '소리와 진동 워크숍' (매주 토요일 11시)도 진행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고려인마을 학생들과 협업한 고이즈미 메이로의 영상물 '삶의 극장'



중국 선전 그레이터베이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황지해·안성연의 '나비춤'

황지해 정원 '나비춤' 中 플라워쇼 금메달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 '첼시 플라워쇼'에서 두 차례 최고상을 수상한 곡성 출신 정원디자이너이자 환경예술가 황지해 작가가 이번에는 중국의 유명 플라워 쇼에서 수상했다.

황 작가는 11월 신에 정원 디자이너 안성연과 협업한 '나비춤'으로 중국 선전에서 열리고 있는 그레이터베이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꽃과 꿈'을 주제로 펼쳐지는 그레이터베이 플라워쇼에는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등 13개국 80개 전시업체가 참여했으며 '나비춤'을 비롯한 9개의 국제 정원이 경쟁부문으로 출전했다.

수상작 '나비춤'은 나비의 춤사위를 시각화해 철새 도래지이자 내륙 생태계의 연결 고리인 선전의 강줄기를 표현한 작품으로 진달래, 애호랑나비와 다양한 유충 등 생태자원을 통해 건강한 지구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더불어 선전항의 페넌테이너 등을 재활용해 정원을 만드는 과정에도 탄소중립을 실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황 작가는 "이번 작품은 멸종 위기 꽃과 생태자원을 통해 지역의 고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을 고려한 제작 과정은 지구생태계의 잠재력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황 작가는 오는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23 첼시 플라워 쇼의 메인 섹션 중 하나인 '쇼가든' 부문에도 출전, 또 한번의 수상을 노린다. 출품작은 지리산 산약초를 통해 신비한 지리산 생태를 세계에 알릴 'A Letter from a Million Years Past'다. '한국의 어머니 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인적 드문 원시림인 동남쪽 약초군락을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지리산 산비탈의 산약초와 희귀식물 등을 심은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황 작가는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참여해 12명의 세계 정원 거장들과 경쟁한다. 첼시 플라워쇼는 23~27일 일반에 공개된다.

황 작가는 2011년 전통 화장실을 정원으로 승화시킨 '해운소: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을 처음 출품,



황지해(왼쪽) 작가와 안성연 작가.

'아트즈 가든' 부문 금메달과 최고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DMZ:금지된 정원'으로 전체 최고상(회장상)과 금메달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동시 수상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원형정원 프로젝트: 달뿌리-느리고 빠른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신예 정원디자이너 안성연 협업
13개국 참여 9개 국제정원 경쟁
5월 영국 첼시플라워쇼에도 출품

아름다운 풍경·정물... 다채로운 작품들

광주전남창조미술협회, 14일~5월15일 협회갤러리

'다채로운 작품 세계로의 초대.'

제7회 광주전남창조미술협회(회장 장복수) 회원전이 1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G&J 창조미술협회갤러리(나주 교육길 13)에서 열린다. 14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순천·여수·고흥 회원들이, 5월 1일~15일까지는 나주, 무안, 목포 회원들이 작품을 전시한다.

지난 2019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 창립전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창조미술협회는 '어쩐지 봄바람', '도자기 회화를 품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열어왔으며 지난해에는 협회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기획초대전 '무등산의 빛 영상산간에 비추다' 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는 강운주·김도희·김지연·조병철·한천자 등 초대작가 18명과 고재문·곽창주·백은영·배교연·한경조 작가 등 회원 52명을 포함, 모두 70여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회원들은 아름다운 풍경, 정물 등 다양한 소재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한편 오는 10



장복수 작 '무제'

월에는 나주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창조미술협회전이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시대 국가주도 혼인 실화 '동상기'

ACC 판소리 음악극
28~29일 예술극장1

조선 후기에 창작된 '동상기'라는 작품이 있다. 결혼 적령기에 달한 자녀가 가난한 나머지 혼인하지 못하자 나라가 가상하게 여겨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나라에서 연회 보조비를 하사해 혼인하도록 권장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혼인 문제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상기'를 모티브로 한 혼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판소리 음악극 '동상기'를 선보인다. 오는 28~29일 ACC 예술극장1.

이번 공연은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공모 선정작으로 지난해 시범공연에서 선보인 바 있다. 올해 완성도와 몰입도를 더욱 높여 ACC 본 공연 형태로 선보이게 됐다.

또한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국가주도의 혼인 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혼기가 찬 남녀의 혼인을 국가가 주선했다는 실제 이야기는 오늘의 결혼관과 맞물려 생각거리를 준다.

작품은 과거시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독신과 비혼, 성소수자라는 공상을 통해 새로운 가족 형태의 개념을 덧붙여 현대인이 살아가는 사회상을 담아 각색했다.

특히 판소리의 다양한 특성과 구성을 기반으로 현대음악과 결합해 타악, 무용,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등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1만원. ACC 누리집에서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의 혼인실화를 모티브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오늘날의 혼인관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아시아적·세계적 현안인 '결혼'에 관한 담론과 연계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결혼을 모티브로 한 '동상기' 공연 장면.

<ACC 제공>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